

현대인의 불안심리에 기댄 에세이들

세상을 보는 현실인식 일깨워... 흥미위주의 상업성은 경계해야

홍혜걸

중앙일보 의학전문 기자

최근 정신과 의사들의 잇단 베스트셀러 출간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80년대 중반 이시형 박사의 《배짱으로 삼시다》를 필두로 시작된 정신과 의사들의 에세이 출간러시는 오늘날 솔직하고 거침없는 문체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이나미, 김정일씨 등 30대 신세대 의사들의 등장으로 이미 세대교체까지 마친 양상이다.

사실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열에 정신과 의사들이 진입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오히려 때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이다. 부의 독점은 물론 지식의 독점조차 비난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의학분야도 더이상 예외일 순 없으며, 날로 점증하는 독자대중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기에 언어의 조작과 사상의 심려함으로 표현되는 문학 자체(literature itself)만은 아무래도 역부족이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랫동안 문학의 주요 소재였던 인간 내면세계의 분석에 관해선—특히 병적 심리현상의 경우—일반작가들에 비해 정신과 의사들이 훨씬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호평받는 것은 검증받은 이론으로 지적 갈등을 해결해 준다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군상의 적나라한 모습들

이들의 글에선 다양한 형태의 인간군상이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낸다. 처음엔 매사에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보통사람들이 무대 위에 올려져 못매를 맞기 시작했다. 《배짱으로 삼시다》가 출간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선의의 뻔뻔함도 때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다. 당시 신문가판대에선 이 책의 영향으로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어색함없이 일부로 신문을 사지 않고 잠시 들쳐보았다가 다시 놓는 ‘배짱’ 두둑한 일들도 잦았다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지내는 일에 익숙했던 많은 한국인들에겐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단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에서 작가 김정일은 한층 더 톤을 높여 ‘노’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심각한 정신 속에서 갖가지 노이로제 질환이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섹스

80년대 중반 이시형 박사의

《배짱으로 삼시다》를 필두로

정신과 의사들의 에세이가

독자들에게 잇따라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인들의 불안심리와

맞물린 필연적인 현상인지도

모르나 문제점도 있다.

자칫 전문가집단 특유의 훈계형

독단과 오류, 무리한 결론의

도출 등이 우려를 자아낸다.

도 과감하게 해부대 위에 올리는 것이 이들의 대중적 인기를 배가하는 요인중 하나다. 기존 문학작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의 섹스 해석이 단순한 작가의 상상에 의거한 픽션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이 직접 치료에 참가한 환자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생생한 체험이라는 것. 소재도 다양해서 동성애가 나오는가 하면 어머니를 근친상간한 지식인의 일그러진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이들이 말하는 섹스는 한결같이 투명하며 논리적이고 당당하다. 자아와 주체가 강조되는 이들의 섹스관에서 독자들은 잠시 당황하지만 이내 이들의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주도면밀한 지적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나미씨는 《여자의 허물벗기》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각성을 촉구한다. 그녀의 글에서 상층받는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심리적 위안을 기대한다면 큰 오해가 아닐 수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할 필요조차 없다는 법률격언이 오늘날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당당한 작가의 시각인 것이다.

컴플렉스투성이의 자신 모습 투영

정신과 의사들이 쓴 베스트셀러엔 한결같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인식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강구하는 버트런트 러셀류의 실용적 진지함이 엿보인다. 사자가 쫓아온다고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가 되길 거부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펴낸 에세이들.

그들의 글에서 언어의 미사여구나 사상의 심오함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불안과 고독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에서 독자들은 컴플렉스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이 책 속에 그대로 적시된 사실만으로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이들이 짜놓은 갖가지 마음고생의 사례를 담은 그물망에서 자신있게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대개 자신의 경우가 서술되는 경우엔 짜릿한 감정이입의 세계로 몰입하게 된다. 가령 실연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때마침 이를 묘사한 대목을 읽는다면 이들의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 속을 파고들게 되며, 앞으로 작가가 내릴 결론에 대해 전심을 다해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정신과의사의 잇단 베스트셀러 집필은 이러한 현대인의 불안심리와 맞물려 있는 필연적 현상인지도 모른다.

지적 허영 바로잡아 주길

문제점도 있다. 우선 이들 작가의 전문성은 자칫 전문가 집단 특유의 훈계형 독단과 오류로 흐를 우려가 있다. 이들의 글에서 유독 선악의 가치판단과 결론이 시원하게 제시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겠으나, 몇몇 주제에서 무리한 결론의 도출이란 느낌을 받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특히 웬만한 사람치고 이들이 내리는 진단명에 한두가지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극히 건전하고 정상적인 독자들의 일상적인 마음고생과 같등마져 심각한 분석대상의 하나로 유권해석이 내려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상업주의에 편승한 베스트셀러 만들기도 요주의 대상이다. 일단 유명해지면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도 모르게 본질에 충실하기보다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충동을 원하는 독자욕구에 부응하게 마련이다. 이들의 전문적이고 해박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독자들의 편협한 욕구를 쫓아가기보다 오히려 독자들의 지적 허영심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